

“무거운 짐 함께 나누고 문수스님 뜻 선양 노력”

조계종 ‘수경스님 복귀 호소’ 입장 발표

조계종이 지난 6월 14일 승적과 함께 모든 직함을 버리고 행방을 감춘 수경스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지난 21일 ‘수경스님이 지셨던 생명살림의 집을 나누어지겠습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대변인 원담스님은 “수경스님의 ‘다시 길을 떠나며’라는 입장을 접한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 모두는 깊은 상심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수스님 소신공양에 이어 수경스님마저 떠난다고 하니, 이로 인해 상심하였을 종도와 국민들에게 집행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담스님은 “스님의 생명살림 호소와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 대변인 입장 전문은
www.ibulgyo.com

원담스님은 “다만 스님이 종단의 승적마저 내려놓는 것은 받아들이 수 없다”며 “다시 돌아오셔서 보살행을 계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스님이 홀로 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스님의 원력이 아름답게 회향될 수 있도록 종단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수스님 추모사업과 그 뜻을 선양하기 위해

종단은 정성을 다해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를 비롯한 단체 및 문도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다”면서 “문수스님의 소신공양 원력이 우리 종단과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 행적 찾기 ‘분주’

이러 대변인 원담스님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경스님의 잠적과 관련해 향후 종단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원담스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님의 행적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하루빨리 스님이 돌아오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살행을 함께 전개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서울 회계사 주지 등을 맡으며 불교계 환경운동에 앞장서 온 수경스님은 지난 14일 “조계종 승적을 비롯해 회계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소임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스님은 떠나기 직전 ‘다시 길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남은 인생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수 장영섭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지난 22일 안성 파라밀 요양원을 방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하루 빨리 쾌차하시라”고 일일이 덕담을 건넸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고맙습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안성=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총무원장 자승스님 ‘파라밀 요양원’ 위로 방문

“훌륭하고 뜻 깊은 일 한다”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이 안성 파라밀 병원과 요양원의 할아버지·할머니와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산하의 파라밀 요양원과 파라밀 양·한방 병원을 방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취임 후 매달 1~2차례 복지시설 및 소외 이웃을 직접 찾아 위로하는 자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은 격려금 외에 별도로 후원금을 약정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방문 당시에도 후원금을 약정했으며, 이날은 파라밀 양·한방 병원 법당에 원불(願佛) 10분을 모시는데 동참했다.

요양원 및 병원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총무원장 스님은 관계자들에게 “정말 훌륭하고 뜻 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현스님은 불교복지의 선구자”라고 격려했고, 각현스님은 “복지불사에 대한 종단차원의 관심이 높

아지고 있고, 불자들이 후원을 많이 하여, 보건복지부 등에서 불교계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각현스님의 안내로 요양원과 양·한방 병원을 돌아보고, 요양중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일일이 위로했다. 총

무원장 스님은 “하루 빨리 쾌차하시라”고 덕담을 건넸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고맙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올해 99세인 심귀녀 할머니는 총무원장 스님 일행이 지나갈 때까지 합장을 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파라밀 요양원 및 양·한방 병원 방문에는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과 총무원 사회복지장 모장스님, 호법부 조사국장 선웅스님, 총무원 사서국장 우봉스님 등이 수행했다.

안성=이성수 기자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복지대모 박병선 박사, 이주노동자, 해명복지원 등 각종 시설 및 이웃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총무원장 스님의 자비행은 아름다운동행, 사회복지재단, 총무원 사회팀 등에서 대상 및 일정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요 예산은 아름다운동행과 총무원(사서실)에서 마련하고, 격려금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각현스님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다니시는 것 자체가 ‘신선한 총각’이고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종단 수장이 자비와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계의 복지불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 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각현스님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다니시는 것 자체가 ‘신선한 총각’이고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종단 수장이 자비와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계의 복지불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 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통 사찰음식 대중화’ 2차년 사업 본격 전개

조계종 문화부, 현황조사·교육에 역점
7월1~2일 동화사서 현장설명회 개최

불교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종단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찰음식 대중화의 2차년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스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올해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특징이 있다. 1차년도 사업이 대전과 충남·북 지역 현황조사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현황조사 등 연구조사와 함께, 대중화와 세계화 분야로 사업을 구분해 진행한다.

올해 지역사찰 현황조사는 대구·경북지역으로 결정됐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현황조사는 대구·경북지역 사찰 989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 열리는 현장설명회는 지역 사찰에

사업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2일에는 동화사 산내암자인 양진암에서 매뉴 시연 행사를 열어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북돋우게 된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 교육을 진행하고, 사찰음식 콘텐츠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또 국내외 음식관련 축제에 참가해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미국 뉴욕에서 ‘2010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열리는 G20정상회의 기간에도 사찰음식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사찰음식은 불교를 종교가 아닌, 문화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며 “지역사찰과 스님,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社 告

근현대 불교자료를 찾습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 근현대 불교자료를 수집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소장하고 계신 불교 기록유산이 영구보존 전송되도록 종단에 기증·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기탁은 본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수집 대상 · 시기 : 대한제국(1897~1910)이후부터 ~ 1980년까지
- 기증·기탁 대상물 : 근현대 불교 관련 내용 문서류, 도록, 박물류, 계절, 일기, 친필메모, 사진, 녹음·비디오 테이프, 사진첩서, 편지, 전법계, 안거증, 포상증, 졸업장, 기타 근·현대 불교관련자료
- 기증·기탁 문의 : 중앙기록관 박성수 행정관 ☎02)2011-1712 park5149@buddhism.or.kr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불교신문사

고객유치·프로그램 개발 ‘만전’

전통불교문화원 4개년 발전계획 수립

공주 대화산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스님)이 4개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전통불교문화원이 마련한 4개년 발전 로드맵의 3대 운영기조는 △종단 사부대중 인재양성 △불교프로그램의 대중화·사회화 △고객을 은인으로 모시는 서비스다.

‘소통과 화합의 인재양성’을 핵심 발원으로 설정한 전통불교문화원은 5대 핵심과제와 40대 주요과제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각오이

3대 운영기조

- ▶ 종단 사부대중 인재양성
- ▶ 불교프로그램의 대중화
- ▶ ‘고객을 은인으로’ 서비스

다. 그동안 기반시설 및 부대공간을 마련하는데 집중한 역량을 ‘고객유치’와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관련기사 2면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강진 백련사 ‘차 이야기’

8면

공옥진 여사 ‘마지막 무대’

9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신도증!!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신도님들께 재적사찰을 통한 신행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멤버십 개념의 새 신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도등록 문의는 재적사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멤버십 가맹·제휴 문의 02)2011-1904

하나. 신도등록

삼귀의 오계를 수지한 불자라면 누구나 재적사찰을 통해 신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신도의 권리

조계종 신도라면 종단의 포상 수여자격 등 종단 신도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며,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신도교육과 멤버십 혜택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 신도의 의무

조계종 신도는 매년 교무금(1만원)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넷. 신도멤버십

멤버십 서비스는 2009년도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 신도증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도증을 소지하고 계신 신도님들께서는 재적사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다양한 혜택

지역별 종합병원 및 한의원 할인 (동국대 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강원 삼성병원 등) 여행사 / 렌트카 / 대중음식점 / 숙박시설(호텔·콘도) 등 다양한 생활 문화 영역의 사업장과 가맹 및 제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www.신도멤버십.kr)

신도 멤버십

검색

